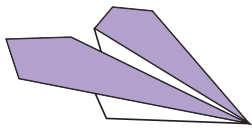


금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일요일 아침 백두산 다녀오기



이연주 | 부천 상인초등학교 6학년

“내일은 산이나 갈까?”

“좋아요!”

6월의 어느 화창한 주말 우리 가족은 일어나자마자 서울역으로 향했다. 열차표를 끊고, 곧바로 플랫폼으로 향했다. 그러자 안내 방송이 울렸다.

“백두산행 열차를 타실 분은 14번 플랫폼으로 와주세요.”

우리는 표와 좌석을 스캔한 후 전자식 계단을 이용해 기차에 올랐다. 곧이어 열차는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열차의 움직임은 매우 부드러웠다.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하게 출발하는 이 ‘에어열차’는 특별한 열차구조와 공기의 움직임이 만나 이루어진 친환경 열차였다. 전기나 연료 없이 기차 밑면의 특별한 구조로, 그것도 화학물질 없이 공기가 밀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그 힘도 센 터라 약 400km로 달릴 수가 있었다.

가족들과 맛난 수다를 떨다보니, 어느 틈에 평양에 도착했다. 백두산 가는 길에 잠시 들를 수 있는 곳으로 역내에 있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이곳에는 식당들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지만 우리 가족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전통 냉면을 먹었다. 지난번에도 평양에 와서 먹었던 냉면이지만 다시 먹어도 언제나 맛있는 것 같다.

그렇게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익숙한 거리들을 뒤로뒤로 보내며 백두산에 도착했다. 이곳 또한 자주 오는 곳이지만, 매번 올 때마다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백두산은 따사한 날씨에 오는 게 제일인 것 같다. 드넓은 경치를 보니 속이 탁 트이는 기분은 역시 최고였다. 한쪽에는 울긋불긋한 꽃들이 수를 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몹시나 추워 보이는 푸르름이 기대어 있었다. 손끝은 가볍게 움길 때마다 촉촉해졌고 마음은 높고도 높은 하늘의 새털구름만큼 가벼워졌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서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경치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볍게 와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행운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등산이 아닌 산책으로 둘러보면서 만끽할 수 있는 백두산의 품은 마냥 넉넉했다.

모든 구경을 마치고, 다시 열차에 올라타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았다. 좌석 스크린에는 에어열차를 만드신 교수님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다.

“조금씩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니,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기분이랄까요. 하하, 관심이 제 인생을 바꾸었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몇십 년 사이에 단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다.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실생활에서 실천하게 되었다. 결국엔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을 현실로 경험하게 하는 특권을 주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뜻 깊은 추억까지 선물할 수 있는 열차까지 만들게 되었으니 ‘관심’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이 힘은 단 한 가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술로 이어진 관심은 뿌리와 가지를 뺏어나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해왔고, 그 발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일상 자동차들도 이제는 공기로 움직이고, 온 세상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만큼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국토는 건강한 흙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매연이 없어졌다고, 공기만 깨끗해진 세상이 아니다. 특히 2020년과 2040년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모두 겪었던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달라진 세상의 차이를 몸소 느끼고 그 차이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훤히 보일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환경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듯하다. 공기뿐만 아니라 땅속까지 생각하며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가슴 벅찬 이야기로 가슴이 설레인 틈에 서울 도착까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 누군가는 지금 마주한 이 상황들을 비현실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상상 속의 일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린 당당히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자연과 과학이 갖는 조화로움과 위대함에 감사함을 가지며, 이 세상의 모든 오염들이 점차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토를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2040년, 또 다시 20년 후, 그 다음 20년 후를 설계하면서 말이다.

서울역을 빠져나오면서 내 주머니에서 전자수첩을 꺼내 들었다. 내가 과학 연구원으로서

개발 중인 ‘재활용 쓰레기 물건 분해하기’ 실험 관련 아이디어 도안이 생각났다. 서울 밤하늘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함으로 온몸을 감싸 안았다.

“나도 곧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야!”